

마주 본 두 영혼 예술적 하모니... '영원한 비상을 꿈꾸다'

조선대, 김보현&실비아올드 소장품전...5월24일까지

'행복한 동행' 전 이후 10년 만... 회화·조각 등 21점 선배

한국 추상표현주의 1세대 작가인 김보현과 그의 아내인 조각가 실비아올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소장품전 '영원한 비상을 꿈꾸다'가 오는 5월24일까지 조선대 김보현&실비아올드미술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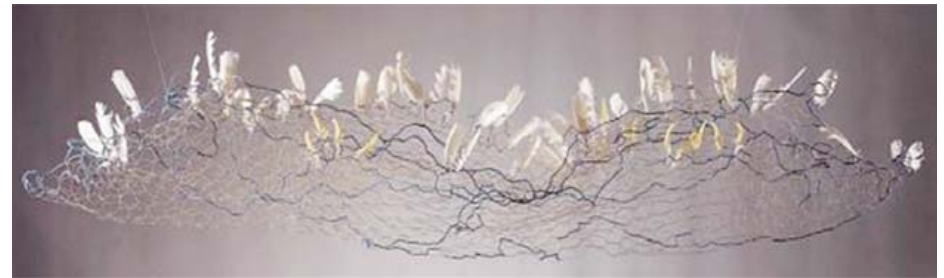
김보현과 실비아올드를 추모하기 위한 기획전은 2014년 '행복한 동행' 전 이후 10년

만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김보현의 회화 11점과 실비아올드 조각 작품 10점 총 21점을 선보인다.

김보현은 1969년 실비아올드와 결혼한 이후 이듬해 자유분방한 감정을 표출한 앵포르멜 작품에서 벗어나 1970년대부터 사실주의 회화작업을 시작하였다. 실비아올드 또한 이상블라주 설치작품에서 벗어나 유기체적인 조각작품을 시작했다.



김보현작 '새와 놀다'



실비아올드작 '비상(In Flight)'

그들은 서로의 작품에 영향을 주며 영혼의 동반자로 40여년을 함께했다.

전시에서는 두 사람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과 새의 형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들이 노년에 담기 시작한 자연과 동물, 새의 이미지는 낙원에 대한 향수이자 자유를 향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새의 형상을 통해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세상을 나타내며 영원한 비상을 꿈꿨다.

1실에서는 김보현의 '날으는 새'와 실비아올드의 '비상(In Flight)'을 전시한다.

'날으는 새'는 인물 주변에 검은 색을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노란색과 푸른 색을 첨가했다. 4명의 인물이 고개를 들어 먼 곳을 쳐다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도상 속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새가 등장한다.

'비상'은 철사와 줄을 엮어 수백 개의 망으로 연결하고 기르던 앵무새의 깃털을 꽃

은 작품이다. 공중에 떠 있는 듯 하지만 망과 망 사이 존재하는 힘을 드러내며, 설치할 때마다 형태가 달라지는 우연의 효과를 주며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보는 듯하다.

2실에서는 김보현의 '새와 놀다', '푸른 꿈', '해변가'를 비롯해 실비아올드의 '새 시리즈' 2점을 소개한다. 특히 '푸른 꿈'은 김보현 작품 중 마티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으로 새-여인-앵자가 있는 공간을 전후 위치와 관계없이 배치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3실에서는 김보현이 미국 9·11 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 '9·11'과 2002년 전시한 이래 21년 만에 모습을 보이는 실비아올드의 '새의 노래'를 전시한다.

조선대미술관 관계자는 "김보현과 실비아올드 작품을 10년 만에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라며 "'새'의 다양한 형상을 통해 영원한 자유, 자연과의 합일로 나아가고자 했던 이들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김보현작 '날으는 새'



실비아올드작 '새 시리즈 1'

'광주시립교향악단 with 에마누엘 파위'

홍석원 지휘...내달 4일 통영국제음악제 초청 무대



베를린 필 하모니 수석 플루티스트 에마누엘 파위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는 4월 통영국제음악제에서 베를린 필하모니 플루트 수석 에마누엘 파위와 협연 무대를 펼친다.

다음달 4일 오후 7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광주시립교향악단 with 에마누엘 파위' 공연이다.

이날 공연 지휘는 광주시향 예술감독 홍석원이 맡고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에마누엘 파위가 협연한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바라'로 공연의 서막을 장식하며, 갈 닐센 '플루트 협주곡'을 플루티스트 에마누엘 파위의 협연으로 만나본다. 공연 후반부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E단조'로 장식한다. 협연자 플루티스트 에마누엘 파위는 파리음악원을 졸업하고 고베, 제네바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22세에 클라уди오 아바도가 이끄는 베를린 필하모니 플루트 수석으로 입단해 현재까지 연주하고 있다.

광주시향은 지난해 통영국제음악당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함께 선보인 공연 실황을 '도이치그라모폰(DG)' 앨범 발매와 동시에 플래티넘을 달성해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2024 통영국제음악제는 '순간 속의 영원'을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4월7일까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다. /최명진기자

'광주예술의전당 알림이' 시민기자단 출범

올해 말까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

광주예술의전당 제2기 시민기자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전당은 최근 발대식을 열고 시민기자 15명을 위촉했다. (사진)

이들은 올 한해 동안 전당 공식 온라인 채널에 다양한 공연 정보 및 문화 소식을 알리는 빛고을 문화 알림이 역할을 한다.

이들은 학생·주부·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폭넓게 구성됐다. 인플루언서,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다재다능한 실력자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를 모은다.

시민기자 김윤서(29)씨는 "전당 문화예술공연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공연의 가치와 울림을 양질의 콘텐츠에 담아 예술의 감동을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당은 시민기자들에게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교육뿐 아니라 소정의 원고료와 공연 관람 기회, 우수 기사 시담에 예술의 감동을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운영문 광주예술의전당장은 "전당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시민기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전당의 발전과 함께 시민기자단이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

